

## ‘금지’와 ‘자부심’으로 매너 게임

포천신문 골프회 제26차 월례회의 개최

8포천신문 골프회(회장 윤중하)는 9월25일 포천아도니스컨트리클럽에서 제26차 월례회의 및 2008년 9월 정기라운딩을 갖고 회원상호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라운딩은 7개 팀으로 편성해 실시했으며 대체적으로 핸디보다 언더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매너 있는 게임으로 서로에게 금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윤중하 회장은 “비가 와서 걱정이었으나 날씨가 좋아 좋은

게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로 화합하고 좋은 얼굴로 만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자 위위 여러분들로 구성된 포천신문 골프회 회원 여러분들이 숭신수범해 각 위원회 회의참석은 물론 활동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보다 훌륭한 매너로 2년 연속 아도니스 우수 단체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멋진 단체 팀의 명예를 지켜나가고 서로



사진은 윤중하 회장(오른쪽)이 메달리스트 박수영씨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정보도 나누는 좋은 모임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라운딩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박수영 ▶

우승 성능모 ▶준우승 장재수 ▶근접상 이찬우 ▶장타상 이상협 ▶행운상 조정선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식물과 사랑 ⑨ | 구절초(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 하얀 꽃 빛이 고운 정결한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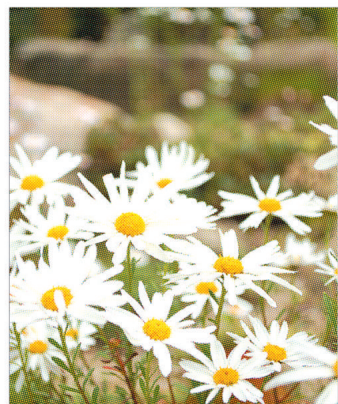
얼마 전 초등학생 꼬마가 가을을 상징하는 것을 가져오는 숙제가 있다며 국화 화분을 하나 사가는 것을 보았다. 어린 아이에게도 가을=국화라는 공식이 연상되는가 보다.

경강식물원에서 국화의 계절을 맞아 10월초부터 들국화 축제를 연다. 지금 식물원 곳곳은 국화꽃향기로 가득하다. 진노랑의 산국과 감국, 연보라빛 개미취, 옥부추와 그리고 가장 큼지막하게 피어있는 흰색 또는 연분홍의 구절초가 있다.

암석원에는 한라산이 고향인 키 작은 구절초가 피어 있고, 포천의 시화(市花)이기도 한 포천구절초는 들꽃동산에 피어 있다. 포천구절초는 다른 구절초에 비해 잎이 갈라져 있어서 ‘가는잎구절초’라고도 한다.

구절초는 높이가 50cm내외로 자라며 지하경이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번식하므로 잘 번진다. 건조에 강하고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자라므로 도로변이나 사면에 심으면 좋다.

주로 부인병을 다스리는 식물로 유명한 구절초는 약으로 쓰기 위해 가을에 채 썬다. 피지 않은 식물을 잘라 햇볕에 말려 쓴다고 한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월경을 고르게 하여 주로 생리불순, 냉증, 불임증에 주로 쓰인다. 또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위가 병한 사람에게



도 효과가 있다. 구절초라는 이름은 약으로 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인데, 5월 단오가 되면 마디가 다삭이 되고, 9월 9일에는 아홉 마디 즉 구절이 되는데 이때 이 꽃을 잘라 쓴다고 하여 ‘구절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대학시절,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김하인씨의 소설 ‘국화향기’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던 기억이 국화향기를 맡으면 슬며시 속스러운 미소가 그려진다. 국화꽃 향기를 맡으며 따뜻한 커피 한잔 들고 가을의 쓸쓸하고 고독한 분위기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손자은  
 경강식물원 가든관리팀  
 문의 031-531-7750

## 紙上갤러리 ⑩ 그림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상징

### 정문경의 헤아릴 수 없는 여정

정문경은 ‘그리고 지우기’의 반복적인 행위의 과정에서 드러난 궤적의 집적으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행위의 과정과 결과물을 자유의지에 맡긴다는 표현이 더 옳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캔버스라는 공간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보이는 것은 역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즉흥적이며 감성적으로 드러난다.

즉 자유를 내가 하고픈 대로 누리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억제와 규범 안에서 찾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구속당해 집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 ‘할 수 없는 여정: 힘 Journey to the unknown: energy’는 주변의 흔한 물건을 오려붙이고 칠하고 지워가며 표현한 모노톤의 작품이다.

칼라를 배제하여 사유의 확산과 응집력을 더욱더 배가시켰으며, 마태 천과 노끈이 사각 틀에서 벗어나 있기에 공간을 더더욱 넓혀가고 있다.

검정 바탕에 희끗희끗 드러나는 울퉁퉁 마태천은 시간의 흔적을 드러내며, 지난 세월과의 교감으로 현재를 읽어 내려는 작가적인 마음을 엿볼 수



Journey to the unknown: energy, Mixed Media, 20'x36'

있다. 수평과 수직, 사선의 교차와 삼각, 직육면체 한 선상에 두고 통합하여, 그래서 생명의 움직임을 통한 삶의 과정을 매우 철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글/ 김구원(화가, 계간비질주간) (017-317-5731)

## 특별인터뷰 ... 이학수 포천시 농축산과장

### 자연환경 이용한 체험 관광농원 인기

농기계 임대사업 정부가 예산 지원해야

포천시 경지면적은 1만377ha이며 밭이 5천575ha, 논이 4천802ha이며 농가수는 8천886가구, 농가인구는 3만253명으로 전체인구의 19% 차지하고 있다. 쌀 생산면적은 2004년도 17만6천486kg에서 2007년도 14만6천958kg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줄어든다.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한(육)우는 545농가에서 8천895두, 젖소는 372농가 1만7천825두, 돼지는 218농가 21만8천950두, 닭은 235농가 5천960수, 기타가축은 2천856농가에 31만4천350두를 사육하고 있다. 기타 가축으로는 산양, 사슴, 토끼, 오리 등 12개 가축을 말한다.

포천시 농축산과는 10월부터는 농정과와 축산과로 분리되어 농업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수(사진·51) 농축산과장을 만나 그동안 포천시 농축산업무에 대해 들었다.

#### ▶현재 포천시 농업의 현실은?

포천시는 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가 노령화, 부녀화 되어가고 있어 노동력이 부족한데다가 수입농산물이 무한정 들어오고 있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다. 포천시 전체예산 4천280억원중 농업예산은 3천200여만원이다. 한마디로 밀바진 독에 물붓기다. 자생력이 없기 때문이다. 벼농사는 소득이 없는 실정이고 포도, 사과농사가 경쟁력이 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사과, 포도 농사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는 생산만 하고 판매와 유통은 농협이나 시가 중심이 돼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농가 평균 경지면적은 1.3ha이며 이 면적에서 연간 생산하는 쌀은 600~900만원이다. 그러나 포도나 사과는 4천만원~9천만원으로 쌀 생산과



이학수 농축산과장을 만나 그동안 포천시 농축산업무에 대해 들었다.

는 비교가 안된다. 따라서 특색 분야로 바뀌어야 농가가 살아갈 수 있다.

#### ▶축산의 현실은?

갈수록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료배배를 위해 3만평을 계약했다. 현재 포천시농민회와 추진하고 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백운 한우의 판매량을 개척하고 금가돈은 주식회사 정토와 1개월에 300두씩 계약을 체결했다.

#### ▶쌀농사 대책은?

이제는 특화시켜야 한다.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농법으로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에 G클러스라이트 생산단지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고시히가리(고품질벼)를 집중생산해 롯데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다. 해솔촌 기찬쌀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고 있다.

#### ▶농기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사항은?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농기계는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구입해야 한다. 이양기는 1천500만원, 트랙터도 1천500만원, 콤팩터는 4천만원 수준이다. 농촌에서 빛지고 사는 게 바로 농기계 때문이다. 따라서 농기

계임대사업을 농협이나 영농단체에서 적은 수수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포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1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4억3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 ▶포천시 농업의 방향은?

앞으로는 관광농원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포천시 관광농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포천부식물원, 허브아일랜드, 광릉분재예술농원, 하늘향기농원, 운악관광농원, 금동관광농원, 목석삼방관광농원, 작동관광농원, 평강식물원, 계류친환경관광농원, 한나무골관광농원, 청산식물원 등이 있다. 농산물 직거래체험도 하고 포천시 자연환경을 이용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분위기가 좋은 농촌관광농원 체험위주로 개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가지 예로 영북면소화산리에서 아트팜이 운영하고 있는 밀크스쿨은 올해 1만평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2억원(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 자부담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700년 대백제의 꿈  
 『교류왕국 대백제』

제54회  
**백제문화제**  
 Baekje Cultural Festival

'08.10.3~10.12  
 충청남도 부여군, 공주시

역사와 문화체험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1,400년전 백제(百濟)를 만나는 시간여행, 즐거움과 감동을 함께해요.

**백제향**  
 『백제의 예술과 생활, 과학체험』  
 • 탁본·의상체험·문양·크로마기 체험  
 민속놀이, 백제탈 만들기 등 19종

**백제국 마상예술 공연**  
 『전통마상 무예 및 몽골 공연단 공연』  
 • 마상제, 마상무예 공연, 말타기 체험장  
 • 기마술대 운영

**퍼레이드 대백제**  
 『백제의 다양한 문물 교류 연출』  
 • 외국사신단 행렬 (중국,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인도)  
 • 각국의 전통모형 배·동물, 전통춤, 개러더

**황산벌 전투 재현**  
 『백제장군의 호국이지 선양』  
 • 사극배우 등 800명, 말 30필  
 • 스펙타클한 전쟁장면 재현

**백제 기마군단 행렬**  
 『백제국의 위대한 기상 표출』  
 • 말 185필, 병사 300명이 검무 연출 행렬  
 • 파발마, 좌·중앙·우 기마군단

**국제문화교류촌**  
 『백제 교역국의 문화 체험 및 민속공연』  
 • 의상·음식·가면 민속체험, 기념품 판매  
 •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주최 충청남도, 부여군, 공주시 주관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www.baekje.org